

## 아랍 국가들의 민자 발전프로젝트 근황

### 1. 개 황

#### 가. 민자 발전소의 등장

아랍국가들의 민간 발전운영자들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향후 3~4년 내에 약 600만 kW의 발전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새 프로젝트는 특히 전력의 민영화가 광범위한 구조개혁 프로젝트의 일부로 되어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그 전망이 좋다. 그러나 몇몇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현금에 쪼들려 전력 부문에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일이 그렇게 기대할 만 한 것이 못된다.

현재 아랍세계에서 가동할 수 있는 민간발전소는 오만의 9만kW 마나 발전소 하나 뿐이지만 몇몇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국제은행들의 한 그룹이 모로코의 줄프라스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 협정을 완료하였고 이집트는 수주일 내에 첫번째의 건설-소유-운전-인계(BOOT)방식의 발전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튀니지는 첫 발전소를 위한 디벨로퍼를 선정하였다. 아부다비와 요르단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시리아까지도 다마스쿠스 북쪽

에 발전소를 짓기를 희망하는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 나. 변화의 씨앗인 민자 발전사업

발전사업을 민간부문으로 개방하는 논리는 이제 광범위하게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공공 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정부가 추가로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효율과 신뢰성을 개선시키고 경쟁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발전소는 또한 생각하지도 않았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그들은 정부소유 전력회사의 구조와 운영에 대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의 씨를 뿌리게 된다. 이 변화의 씨는 한 번 뿌리가 내렸다 하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최근의 세계은행 논문에서 엘리오토 로스만 씨와 아닐 말호트라 씨는 지적하고 있다.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잘 진척된 아랍국가들은 민간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비옥한 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화의 씨앗이 곧 활기 넘치게 자라기 시작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또한 몇몇 국가의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모두 잃기 전에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항하

며 지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 2. 이집트

#### 가. 시디크리에르 민자 발전소

"전문적". 이 말은 알렉산드리아 인근의 시디크리에르에 건설되는 이 나라의 첫번째 민간발전소에 대한 이집트의 교섭을 설명하는데 국제적인 회사들간에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정부는 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길을 열어놓았다. 이집트의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전력의 생산비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입찰예정자들은 미국의 서전트 앤드 룬디가 주도하는 컨설턴트 팀의 도움으로 세심하게 만들어진 과제(수행범위(TOR))에 근거하여 사전 자격심사가 이루어졌다.

1997년 10월에 아홉 개의 입찰서가 공개 개봉되었으며 미국 벡텔의 민간발전 관리담당 회사인 인터젠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분석가들은 인터젠이 제시한 가격은 이 회사가 65만kW 발전소 건설에 약 3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향후 몇 주일 이내에 정부는 제의서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인터젠이 선두주자로 간주되



고 있으나 역시 미국회사인 엔론 코퍼레이션이 주도하고 있는 그룹도 강력한 한편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 나. 송전 및 배전 부문의 구조개혁

이와 동시에 정부는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구조개혁과 함께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이집트 전력청(EEA)이 발전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전부문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배전은 국가의 지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덟 개의 회사가 분담하고 있다. 새로운 구조개혁은 지역 송전부문과 배전회사들을 새로운 기업체로 통합시키는 것으로서 EEA가 80%의 지분을 가지며 20%는 공공에게 매물로 내놓게 되는 것이다. EEA의 목 지분은 점차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체제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디크리에르 프로젝트의 분명한 성공으로 이집트 정부는 새로운 BOOT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용기를 갖게 되었다. 다음 차례는 카이로 남쪽의 쿠레이마트 발전소의 확장공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뒤따라 수도 카이로 자체 내에 있는 한 발전소의 확장공사가 있게 될 것이다.

### 3. 모로코

#### 가. 줄프라스파 프로젝트

줄프라스파 프로젝트는 자금투입 일정과 자금원의 계획이 종료되었고 모로코

당국은 이제 그들의 두 번째 민간발전 프로젝트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부문을 바로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손에 넘기도록 준비하는 범위에 대하여 아직 불안정한 갈등상태에 놓여 있다.

줄프라스파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모로코가 이제 국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선택하였으며, 이것은 1997년 12월에 일련의 새로운 가스연소 발전소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감독할 목적으로 두 개의 기구 설립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국영전력회사인 모로코 전력공사(ONE), 프랑스 전력공사(EdF) 그리고 스페인의 스페인 전력공사(ENDESA)가 서명하였다.

#### 나. 타하다르트 에너지회사(TEC)의 설립

새로 설립된 타하다르트 에너지회사(TEC)는 30만kW 가스연소 발전소를 탄지예르 인근에 건설할 계획인데 투자액의 3분의 1은 주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부채로 충당하게 된다. ONE은 이 회사 지분의 51%를 취득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ONE의 회장이었으며 현재는 모로코 과도정부의 에너지·광산·수송 및 관광 장관인 드리스 벤히마 씨가 주장하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첫번째의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의 승인은 건설-운전-인계(BOT) 방식 이어서는 안되며 ONE이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히마 씨는 가스연소 발전소를 개방하

게 되면 알제리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상 프로젝트를 야기시키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스공급자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 다. 자율화의 후퇴에 대한 우려

TEC의 설립 결정은 다른 국제적인 회사들에게는 타하다르트가 독립발전소(IPP) 입찰에서 경쟁상대로 조직되었을 것으로 비춰져 이제껏 입찰을 준비해온 그들이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척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평을 낳게 했다.

산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려는 기업체는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 그룹과 미국의 CMS 에너지사 — 줄프 라스파의 운영 및 디벨로퍼로서 — 영국의 내셔널파워 그리고 기타 주요한 미국 및 유럽의 회사들이다. ONE은 타하다르트 발전소에 대한 건설과 운전에 대한 국제입찰을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EdF와 ENDESA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쌍방부채전환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한다는 약속을 뒷받침으로 이들 계약에 대하여 입찰할 것이 허용됨으로써 모로코가 전력부문의 자율화로부터 한 걸음 두드러지게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상황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이슈는 모

로코 IPP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국제 은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것이다.

줄프라스과 프로젝트의 자금공급액 10억 9천만 달러의 상업은행간 신디케이트는 결국 100% 초과 청약되었다.

### 4. 튀니지

줄프라스과 정책의 성공은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투자-등급인 국가리스크급에 대해서만 거래하겠다고 은행이 요구할 경우 튀니지의 첫 IPP에 대한 자금공여가 경쟁적인 가격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0만kW 레이드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약은 미국의 커뮤니티 에너지 얼터너티브즈(CEA)와 시스 그리고 일본의 마루베니 코퍼레이션의 컨소시엄이 따냈다. 이것은 경쟁적인 두 개의 입찰 그룹—내셔널 파워와 마라톤 그리고 인터젠이 주도하는—을 후보 입찰자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예비로 보류해두고 여러 달 협상한 끝에 얻은 결과이다. 이 그룹은 국영전력회사인 튀니지 전력·가스 공사(STEG)에게 20년간의 전력구매 합의서에 의해서 전력을 팔게 된다. STEG는 또한 이 콤파인드 사이클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며 통화리스크를 떠맡게 된다.

레이드 발전소의 협상내용은 튀니지의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경제개혁에 대한 공적인 집착에도 불구하고 STEG가 전력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 5. 요르단

첫번째의 민간발전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지만, 전력부문 전체의 리스트럭처링과 함께 긴밀하게 제휴되어 추진되고 있는 요르단의 조건과 같은 곳은 없다.

미국의 K&M 엔지니어링 앤드 컨설팅 코퍼레이션이 새로운 발전소를 위한 입찰안내서를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다. 연료원과 발전소 위치들이 포함되어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입찰안내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가 예상되는 기업체들은 요르단 정부에 의해서 제시된 새 프로젝트의 기본원칙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본질적인 점에서는 대체로 비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제도적인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영전력회사가 코퍼레이션으로 개편—국가 전력회사(NEPCO)—되었으며, 이미 효율에 대한 확고한 명성을 신속하게 수립하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새로운 민간발전소는 자동적으로 개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르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는 한 간부는 말한다. “그들이 민간발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현재 NEPCO의 해체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전기부문 전부를 다루는 새로운 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발전은 새로운 발전소의 개발자를 포함하는 독립회사에게 양도하며 송전선

로 계통은 NEPCO에 남게 되고 배전사업은 새로운 회사에 넘겨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6. 걸프 연안국들

걸프 연안 4개국은 민간발전을 경험하였다.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진전이 많았다. 바레인은 아직 민영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듯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첫 프로젝트가 실현되려면 아마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7. 아랍에미리트

#### 가. 야심적인 민영화 계획

아부다비는 걸프연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야심적으로 전력사업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부문에 투자기회 확대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산업의 철저한 오버홀을 지향하고 있다. 아부다비의 선도적인 계획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 계획중인 타월라 B 발전소 확장을 제외하고 계통에 대한 모든 새로운 발전설비의 추가는 건설-운전(BO)방식에 의해서 추진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국가소유의 수도전기국(WED) 자산은 네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배전부문은 두 개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각각 아부다비와 알아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기설 발전 및 담수화 부문은 네



개의 새로운 독립된 회사로 조직개편하게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구하게 된다. 나머지 두 개 부분인 촌락과 도서부문과 송전은 정부가 계속해서 완전히 관장하게 된다.

#### 나. 코제너레이션 발전소의 입찰

새로운 송전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정부는 새 발전 및 배전회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력과 물의 구매자 및 판매자의 지위에서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부담하게 되는 보조금 수준의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민영화위원회가 구성된 9개월 전부터 새로운 규제의 골격이 완성되었으며 WED의 조직을 개편하는 복잡한 과제에 착수하였다. 에미리트는 첫번째의 새 독립전력 및 수도 개발사업인 타월라 A-2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발행하였다. 여덟 개의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국제적인 입찰희망자들에게는 48만~58만kW 코제너레이션 발전소에 대한 입찰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기일이 주어졌다. 낙찰된 입찰자는 발전소를 건설, 소유 및 운전하게 될 새 전력 회사의 지분을 40% 가지게 된다.

#### 다. 민영화위원회의 성공적인 업무추진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취급함에 있어서 속도와 방법 모두에서 기대를 능가하는 업무추진 능력을 과시하였다. 의문의 여지없이 경험 있는 국제 컨설턴트 팀

의 고문으로부터 착수시 정보를 종합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으며 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정치적인 지지를 향유하였기 때문이다.

이웃의 두바이는 전력부문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소유의 두바이 전력·수도청(DEWA)을 즉각 민영화하지는 않는 상태를 계속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의 목표는 DEWA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를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체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고 상업적으로 운영가능한 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997년 12월초부터 전기 및 수도요금이 개략적으로 약 30%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보다 아직 위에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8. 오 만

9만kW의 마나 민간발전소가 1996년 말 전 출력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전기·수도성은 전력을 보조금만큼 할인된 값에 소비자들에게 팔기 전에 발전소 소유자들인 유나이티드 파워 컴퍼니가 발전한 전력을 구입한다. 가정용 전기의 소비자 고객은 전력의 실제 생산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오만의 두번째 민자발전 프로젝트인 살랄라에 대한 입찰은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명된 디벨로퍼는 20만kW의 발전소

를 이슬람교국의 군주인 술탄의 영토 남쪽에 건설하게 되며 전체 살랄라 지역 내에 있는 기설의 발전, 송전, 배전설비를 매수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132kV 송전시스템을 포함한 새 송전설비를 설계, 자금조달 및 건설하게 되며, 라이스트항구로부터 새 발전소를 잇는 파이프라인과 새 디젤저장설비도 건설하게 된다. 디벨로퍼는 30년간 전력시스템을 운전 및 유지보수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기사용 고객에 대한 요금청구서 발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요금과 신규수용에 따르는 선로연결 비용결정에 계속해서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 9. 바레인

히드 전력 및 상수도 플랜트의 첫 단계 건설이 이미 진행중에 있다. 민간사업자인 브리티시가스와의 이 프로젝트의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협상한 끝에 정부는 1996년 5월에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엔지니어링, 구매 및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바레인 내셔널은행과 시티은행이 마련한 5억 3천만달러의 차관을 뒷받침으로 1997년에 추진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히드 플랜트의 2단계 사업 개발에서는 선택의 자유폭을 대폭 넓힐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결국 1단계에서 책정되었던 28만kW와 1일 3천만 갤런과 동일한 용량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앞으

로의 수요에 차질없이 대처하려면 정부는 1998년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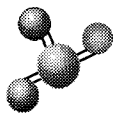
정부는 제1단계 사업의 결과 공공에 의한 개발 옵션이 가장 저렴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참여하게 되는 건설-소유-운전(BOO)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관측자들은 정부가 제2단계 사업에서도 공공이 아닌 다른 개발 방식을 채택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10. 사우디아라비아

175만kW 슈아이바 플랜트에 대한 BOO 및 턴키 옵션에 의한 입찰 초청이 이루어졌다. 산업·전력성의 하심 야마니 장관은 사우디의 전력계통 확장과 현대화에 대한 자금공급에 있어서 민간자본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그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약 1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 BOO 합의를 위

한 협상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며, 정부는 또한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제도는 이 부문 전체의 구조조정과 연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자들은 슈아이바 플랜트의 경우 턴키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민간 발전에 대한 촉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 'Middle East Economic Digest', 1998.2.6.)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전력사업 현황

### 1. 개요

- 국토 면적: 5만 1129km<sup>2</sup>
- 인구: 438만 3천명
- 수도: 사라예보
- 기타 도시: 바냐루카, 제니차
- 언어: 세르보크로아트어
- 통화: 뉴디나르
- 국민 총생산: 10억달러
- 주파수: 50Hz
- 전압: 220V
- 연간 1인당 전력소비: 675kWh

### 2. 일반 사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발칸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스니아는 한 때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으나 1992년 3월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북쪽과 서쪽은 크로아티아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세르비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몬테네그로(아직 세르비아에 속해 있다)와 접해 있다. 보스니아는 실질적으로 사방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만 아드리아해에 단지 1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북부 보스니아는 산악지대로서 울창하게 나무로 뒤덮여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부에는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비교적 많다. 이 나라의 중요한 하천은 사바 강 - 드리나, 우나 및 브르바스의 지류를 가지고 있다 - 그리고 네레트바 강과 트레비니

차 강이며 모두 아드리아 해로 흘러 들어간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활동상태에 있는 지진대에 속한다.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가 여섯 개의 공화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헤르체고비나 내에서는 전투가 발발하였다. 1992년 3월에 독립한 후 보스니아의 분쟁 경계선과 인구 통계적인 구성은 4년간에 걸쳐서 격렬한 변화상태에 놓여 있었다. 1995년 11월 21일에 평화협정이 미국의 오토 이오주 데이턴 인근의 미공군 기지에서 합의되었으며 그 다음달에 협정서가 프랑크 파리에서 서명되었다. 데이턴 협정은 보스니아를 보스니아와 헤르체고

비나(또한 이슬람교도-크로아티아인의 연합체라고도 알려져 있다)와 레퍼블리카 스프스카-세르비아 공화국-의 각각 국토의 51%와 49%를 점유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단일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사라예보는 중앙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통합 도시로서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UN)에 의해서 조직된 큰 군사력이 질서를 지키도록 지상군으로서 남아있다.

전쟁의 결과로 연방국의 산업 기반 구조는 세르비아인이 점유하던 지역에서는 파괴되었거나 결국 폐쇄되고 말았으며, 그 인기도 상당히 감소하였거나 대량으로 이주되었다.



### 3. 보스니아의 전기

#### 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력공사 (EBIH)

보스니아는 제니차 탄광에서 1888년에 직류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전기공급이 시작되었다. 1895년에 사라예보에서 공공용 조명등이 설치되었으며 4년 후 아이체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준공되어 가동되었다. 세계 2차대전 후에 보스니아의 송전계통이 하나 둘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1955년에는 다른 유고슬라비아의 공화국들과 통합되었다. 1991년에는 보스니아의 발전설비 설치 용량이 399만 1천kW에 이르렀고 전력 생산은 138억kWh, 첨두수요는 200만 kW였다.

보스니아 연방의 국유전력회사는 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 전력공사(EBIH)이다. 1993년 1월 11일에 설립된 EBIH는 연방 전체에 걸쳐서 발전, 송전 및 배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 방대한 복구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세르비아 지역에서는 전력회사가 스프스카 전력공사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전력계통은 세계 2차대전부터가 아니라 1991년 이후 보스니아에서의 지속된 물질적인 손상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비교적 현대적이며 통합되어 있던 보스니아의 송전계통망은 내란기간 동안 다섯 개의 독립된 "섬"으로 분할되었으며 많은 곳에서 고압송전 시스템이 손상됨에 따라 전력 공급은 신뢰도가 없어졌다. 1991년 9월에 크로아티아와의 연계는 — 그리고 서유럽 송전 그리드인 발송전 협조연맹(UCPTE) 계통과의 병렬운전도 — 사용

하지 않게 되었다. 1992년 중반에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와의 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계통주파수의 불규칙적인 변동이 수시로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적인 계통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 나. 전투와 시스템의 분할과 복구

1992년 하반기와 1993년초에 EBIH의 몇몇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남부의 달마티아 지역이 다시 연결되었다. 그러나 1993년 4월과 5월에 다시 대규모 전투가 갑자기 발생하여 5월에 달마티아가 분리 고립되었고 모든 수력발전소는 송전선로의 고장으로 선로에서 분리됨으로써 가동이 중단되었다.

사용가능한 발전용량은 4만kW의 한 석탄화력발전소뿐이었으나 연료가 바다

나 버렸다. EBIH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분리되었으며 화석연료연소 발전소가 하루에 너댓번씩이나 트립이 될 만큼 주파수의 제어가 악화되었다. 8월에는 15만 kW 야블라니차 수력발전소가 계통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상황이 개선되었다. 보스니아 정부가 통제하는 좁혀진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은 아직 수요의 30~40%를 충족시키는데 머물고 있었다. 사라예보는 1993년에 140일간이나 대형발전소로부터의 전력계통을 통한 공급을 받지 못해 사라예보시의 거주자들에게도 겨우 2~3천kW의 전력밖에 공급할 수 없었던 기간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대형 투즐라 화력발전소(78만kW)는 폭격과 로켓공격을 받았다. 모스타르(7만 5천kW)와 살라코바크(21만kW)의 두 개의 수력발전소는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송전계통의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1992년의 보스니아의 전력생산은 전년에 비해서 거의 50%가 감소하였다. EBIH의 종업원도 1991년말의 18,029명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4년 6월에는 3,363명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BIH는 계속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기능을 유지하였으며 전투가 느려짐에 따라 연방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게 만들었다. 1994년초에 약 30만 kW를 전력공급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6월에는 1일 전력소비가 510만 kWh에 도달하였다. 연간 발전량은 1993년보다 3% 증가하였으며 1995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5%가 더 증가하였다. 1996년 2월에 보스니아는 크로아티아에 다시 연결되었으며, 역시 UCPT에 연계되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전소가 복구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송전계통도 다시 건설되었다.

## 4. 1996년 전력 통계

### 가. 총발전설비 용량: 399만 1천kW

이제 국가전체의 전력통계는 얻을 수가 없으며 EBIH에 의해서 연방지역에 대한 것만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공화국에 대해서 1992년 이후의 정보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쟁 전의 "전체 보스니아"의 데이터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되었다.

1996년말 현재 보스니아내의 총발전설비용량은 399만 1천kW이다. 이 중에서 257만 6천kW는 연방 내에 있는 발전소로서(121만 9천kW는 수력발전 용량이며, 135만 7천kW는 화력발전 용량이다) 이 중에서 169만 1천kW가(수력 97만 9천kW 그리고 화력 71만 2천kW) 전력공급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합계용량 2만 2천kW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소수력발전소가 열 개소 있으며 EBIH는 29만 8천kW 용량의 자가용(산업) 발전소 열다섯 개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 나. 전체 발전량: 37억 5900만kWh

네 개의 대형 화력발전소 — 갈탄 연

소 — 중에서 단지 두 개만이 1996년에 다시 발전을 개시할 수 있었다. 화력발전소의 출력은 투즐라-5(20만kW)와 카칸즈-6(11만kW)의 수리복구로 1996년에 44%가 증가한 11억 2600만kWh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두 발전소는 1996년 한해 동안 전쟁전의 10~20% 사이의 출력 수준에서 운전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한편 가츠코와 우글에비크의 30만 kW 발전소들 — 1991년에 보스니아 화력발전량의 30%를 담당하였던 — 은 연말에 가동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수력발전소에 대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물이 풍부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1991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억 8600만kWh였다. 아이체의 두 개의 발전소(4만 8천kW 및 3만 kW)가 계통에 연계되었으며, 살라코바크의 7만kW 발전소가 발전을 개시하였다. 송전계통에 대한 복구가 더욱 진행되었고 UCPT에 연계가 복구됨으로써 수력발전소의 이용을 촉진하게 되었다.

1996년의 보스니아연방내의 전체적인 발전량은 37억 5900만kWh였으며, 중형 및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25억 8600만kWh, 소수력발전소에서 4700만kWh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11억 2600만kWh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4억 6300만kWh를 수입하였다. 연방의 전력소비는 1995년보다 47%가 증가한 33억 800만kWh였다. 소매 및 상업판매량이 30억 9900만 kWh, 직접판매가 7500만kWh 그리고



1억 3500만kWh는 시스템 손실이었다. 호의적인 조건으로 EBIH가 이탈리아에 판매한 적은 양의 야간 판매도 포함하여 1996년에 9억 1400만kWh의 전력을 수출하였다. 1996년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피난민들의 귀환에 따라 전기사용 고객의 수가 증가하였다. 첨두수요는 1996년 7월에 거의 60만kW에 도달하였으나 이것은 1991년 6월에 기록된 190만kW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다.

## 5. 송전 및 배전

### 가. 기간 송전 시스템: 400kV

발칸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보스니아가 400kV기간 송전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몫은 전체지역의 송전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 선로는 크로아티아의 에르네스티노보로부터 남쪽으로 뻗어서 브르치코 인근의 변방을 건너서 투즐라에 연결된다. 여기에서 분기선이 서쪽으로 뻗어서 바냐루카에 이른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뻗어서 비셰그라드 수력발전소에 연결된다. 이 기간 송전선로는 남쪽으로 계속 뻗어나가 사라예보를 거쳐 모스타르에 이르게 된다. 한 분기선이 서쪽으로 가서 크로아티아의 코니스코로 되돌아가며 한편 간선이 동쪽의 가츠코에 연결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트레비네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서 몬테네그로로 건너가게 된다.

보스니아는 또한 2회선 220kV 송전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는 크로아티아의

다코보로부터 보스니아에 들어오며 모스타르로 가는 400kV 시스템과 얼마간 평행하게 뻗어 있다. 사라예보로부터 두 개의 220kV 분기선이 서북쪽으로 보스니아를 지나서 프리에도르에서 만나게 된다. 거기로부터 지선 하나는 서쪽의 비하치로 가며, 두 개의 선로는 크로아티아의 프라클린과 메두리치로 가게 된다. 남쪽의 모스타르로부터 200kV 선로가 서쪽으로 뻗어 크로아티아의 자쿠차츠로 가게 되며 두 개의 회선이 카플리나 수력발전소로 이어지고 다른 두 개의 회선이 트레비네로 가서 다시 남쪽으로 이어진다.

### 나. 변전설비 총용량: 1066만 6천kVA

1992년에 보스니아의 고압송전 시스템은 400kV 선로 838km, 220kV 선로 1,424km, 그리고 110kV 선로 3,172km로 구성되어 있다. 변전설비의 총용량은 1066만 6천kVA이다. 1996년 말 현재 연방은 400kV 선로 107km, 220kV 선로 629km, 110kV 선로 1,305km와 295만kVA의 변전설비를 관장 운용하였다. 이것은 전년도에 EBIH가 220kV 선로 247km를, — 대부분이 투즐라-모스타르구간인 — 그리고 110kV 선로 308km를 1996년에 복구운용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개선이었다.

배전부문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복구 사업이 계속되었다. 1991년에 보스니아의 배전시스템은 35kV 선로 2,390km, 10/20kV 선로 21,313km, 0.4kV 선로 68,495km 그리고 변압설비용량 511만

7천kVA이었다. 1996년말 현재 EBIH는 35kV 선로 992km, 10/20kV 선로 7,274km 그리고 0.4kV 선로 21,854km와 변압용량 247만 1천kVA를 운용하고 있다. 35/10kV 변전소 열세 곳과 10~20/0.4kV 변압기는 800개소가 넘는 곳에서 설비를 그 해에 설치하였다.

## 6. 정상적인 전력사업으로의 복귀

### 가. 세계은행과 우방국들의 지원

보스니아 연방의 전력공급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체코,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및 미국 등 여러 나라 정부의 도움으로 복구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스니아의 전력부문이 건전한 경영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새로운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새로운 발전설비의 건설을 시작할 시점이 된 것이다. 1996년 4월에 체코의 스코다가 카칸즈에 건설하게 되는 새로운 11만kW 발전소 두 기의 주문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현재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BIH는 또한 네레트바 강의 코니츠에 새로운 대형 수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 민간회사가 건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드리나 강의 오사니카 지류에서 96만kW 발전소를 포함하는 더 많은 소수력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EBIH 연차보고서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상황”하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도 수입이 62% 증가하여 1억 9700만 독일 마르크(DM)였으며 로스가 두 배가 되어 1억 600만DM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종업원 6,160명에 대한 급여와 연료비 지불과 같은 정상적인 사업관행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으로부터의 코스트 리커버리도 전후중일 때의 45%와 1995년의 53%로부터 70%로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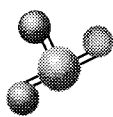
나. 중앙급전 통제센터의 설치추진

정부가 조직개편에 몰두하게 되는 것

은 이해할 만하다. 보스니아 전력부문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에 대하여는 아직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때가 되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전기사업법의 초안이 하나의 목표로서 EBIH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정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전력회사는 이미 발전, 송전 및 배전으로 부서가 분할되어 있으며 세 개의 법인체가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배전부문은 비냐루카, 비하치, 도보이, 보스타르, 사라예보, 투즐라 그리고 제니차와 같은 주요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일곱 개의 구역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비하치는 아직 연방 송전선로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전력을 크로아티아로부터 받고 있다. EBIH의 주요목표의 하나는 데이턴 합의서의 부록 9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스니아 전체를 위한 중앙급전 통제센터(CLDC)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리스트럭처링이나 또는 다른 조직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 udi 'Country of the Week', 1998.2.17.)



## 이란-부시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제휴

### 1. 미국의 다각적인 방해공작

이란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활동인가? 어느 정도 이 점을 의심하고 있는 미국은 1979년 혁명 이전에 독일이 시작해 놓은 걸프의 항구인 부시르의 원자력발전소를 완성시키도록 이란이 러시아에게 계약을 제의한 3년전부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러시아에게 8억 달러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에게 원자력 부품을 수출할 것으로 믿어지는 다른 나라들에게 뇌물의 공여를 제의하였으며, 이들 나라에는 중국, 아르헨티나, 몰도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보다 성공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을 때 우크라이나가 부시르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할 터빈을 이란에 팔지 않겠다고 합의한 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발표하였다(러시아는 1997년에 터빈의 설계와 제작을 우크라이나에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1997년 10월에 역시 보다 많은 원자력협력을 약속한 후에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전직 관리는

1990년대 초반원자로와 다른 핵물자를 이란에 판매하려던 계획을 미국의 압력으로 취소하였다고 말하였다.

### 2. 100만kW의 경수형 원자로

이제 미국은 다시 인공위성 발사라는 돈벌이가 되는 시장에서 보다 큰 몫을 차지하는 대가로 이란과의 제휴로부터 러시아를 떼어놓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사람들은 또한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러시아가 돕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러시아의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였을 때 제기되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새 원자력에너지 책임자인 이브젠시 아다모프로에게 보다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그의 전임자는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가 전부였던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러시아를 유인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 러시아는 현재 100만kW의 원자로를 설치중에 있으며, 만일 이란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후에 보다 작은 두 개의 원자로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이 발전소를 완성하겠다는 이란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터빈을 러시아 자체의 산업계에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부시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국제핵무기 금지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러시아의 관리들은 이란에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는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적게 생산하는 경수형 원자로를 설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3. 이라크와의 전쟁(1980~'88)으로 파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란은 핵무기생산의 어떤 야심도 부인하면서 10 내지 15년 이내에 연료 매장량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 현재 세계 석유의



10%와 천연가스의 20%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모든 활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검사관을 이란에 파견한 IAEA는 어떤 비밀 군사 프로그램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또한 심각한 현금부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는 보다 더 중요한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부시르 뿐만 아니라 혁명 전에 미국이 제공한 테헤란대학의 실험원자로, 또 과학 및 농업 프로그램을 위한 작

은 원자로를 가진 몇 개소의 다른 민간 원자력 플랜트를 가지고 있다. 부시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란의 국왕 사가 왕위에 있을 때 미국의 시인 하에 1975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때는 무기제조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요란을 떨지 않았었다. 이 발전소는 이라크와의 1980~1988 전쟁에서 크게 파손되었다. 독일이 이것을 수리하거나 완성시키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란은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다.

### 4. 현지 언론의 비판적인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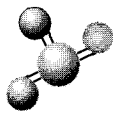
그러나 러시아와의 제휴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는 2000년에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건설 공

사는 비효율과 관리운영의 잘못으로 방해를 받았으며 지연되었다. 이란과 러시아 양국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현지 회사가 그들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

다. 한 이란 신문인 살람은 농담조로 이 프로젝트를 "이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되면서 원자력발전 국가집단에 참가할 수 있는 날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슬픈 이야기이다"라고 비

웃는 기사를 썼으며 당국은 침묵을 깨고 공공에게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The Economist』 1998.3.14)



## 뉴질랜드-오클랜드의 흑서, 정전 사태와 시민의 분노

### 1. 불어닥친 열파와 정전사태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시의 중심부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전등이 느리게 깜빡이기 시작하였으며 이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네 개의 주요 케이블이 먼저 비실비실하더니 결국에는 고장이 나고 말았다. 도시 중앙의 상업 지역은 사실상의 정지상태로 머무르고 있었다.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행운이었으며, 또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공수해온 회사는 문을 연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소규모의 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였다.

1997년 11월에 수상직을 인수받은 제니 시플레이 여사에게 있어서는 전력 위기는 그녀가 더 많은 전력을 민영화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녀의 첫 리더십의 큰 시험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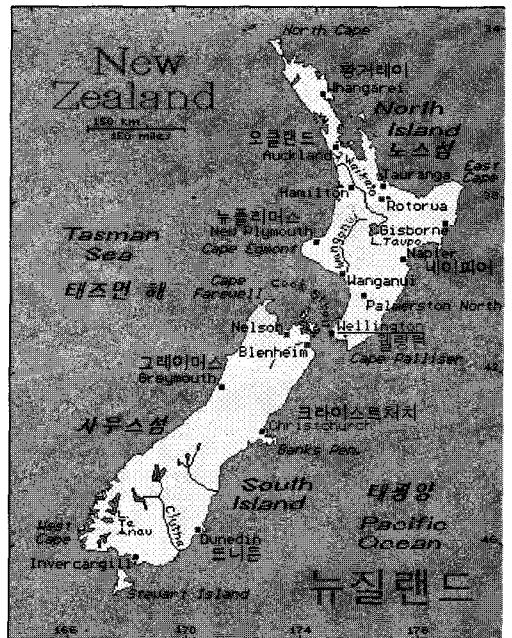
이번 정전으로 사람들은 오클랜드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 회사인 머큐리 에너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2. 전력공급 케이블의 고장

그들은 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급속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머큐리는 겨우 네 개의 지중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클랜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포럼이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메리카컵 요트시합 등의 행사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형 호텔과 여러 채의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수도인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는 더 작은 도시들이지만 이들 두 도시의 전력은 두 배나 더 많은 간선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고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괴이한 불운이

다”라고 짐 메콜리 회장은 말한다. 한 아파트의 대형관리자는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의 제3세계의 상황중에서도 최악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기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돌아오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약간의 전기가 시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복구되기도 하였으나 수



리된 케이블 두 개가 시험중인 3월 4일에 다시 고장을 일으켰다.

### 3. 전력부문 개혁의 다음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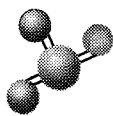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전기사업은 두 개의 국가 소유 기업체가 전력을 생산하며 제3자에 의해서 송전되어 머큐리와 같은 소매회사로 배분이 된다. 화가 난 오uckland 시민들은 머큐리의 소유자들이 이웃의 전력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익금을 많이 올리려고 새로운 케이블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켰다며 비난하였다. 많

은 사람들이 이 회사(이제 "추락하는 머큐리"라고 불려지고 있는)가 뉴질랜드의 가장 큰 범플회사인 러셀 맥비프 맥켄지 바르트리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악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노동당 정부의 전력 구조개편으로 많은 전력국이 공공 또는 민간회사로 대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머큐리는 이론적으로 공공을 대신해서 오uckland 에너지 소비자신탁이 소유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괴물로 생겨났다. 여가의 임원들은 러셀 맥비프의 승인을 받은 임명자가 5:4로 수적인 우세를 보이

고 있다.

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1855년 이래 최고의 온도였다는 것이 울화통을 누그러트리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혹서 기간 중의 열파가 오래된 케이블에 고장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이유였든지간에 정부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전등과 에어컨디셔너가 다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발전 및 배전회사들의 민영화를 포함하는 전력부문 개혁의 다음 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The Economist', 1998.3.7.)



## 필리핀 - 과다징수 전기요금의 환불과 대통령 선거

### 1. 310만 고객에 2억 7500만달러 환불

경제개혁은 라모스 대통령의 주요 업적의 하나이다. 독점권을 박탈하고 은행, 통신 및 전력과 같은 주요부문을 개방함으로써 행정부는 1995년 이후 필리핀이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제적인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수 없이 많은 기업체와 기업가들이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성장과 번영을 더욱 자극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델 라모스 대통령의 정부가 마닐라 전력회사에 대해 강압적인 정책을 쓰자 그의 찬미자들은 초기에는 좀 당황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그의 레세페르 즉 무간섭주의 유산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에너지규제위원회(ERB)는 파워 자이언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마닐라전력회사(MERALCO)가 부당하게 비싼 전기요금을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ERB는 310만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과다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의 환불액으로서 약 2억 7500만 달러를 되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의 전기요금도 인하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1998년 이익금으로 예정하고 있는 금액에서 8500만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 2. 가톨릭 주교회의(CBCP)의 견해

라모스 대통령은 "여기서 핵심요소는 소비자의 이익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RB는 정부 비평가들을 향하여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 5월 11일의 대통령 선거일에 가까운 — 전기요금에 대한 들끓은 양심의 가책을 유발시키는 조치의 뒤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MERALCO를 지배하고 있는 로페스 일가를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여당연합 라카스-NUCD에 의한 책략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큰

야당인 LaMMP의 상원에 대한 대망을 품고 있는 존 오스메나 하원위원은 비난하고 있다. 그는 로페즈 일가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반대 그룹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서시오 오스메나 씨의 사촌이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CBCP)도 역시 정치적인 냄새를 맡고 있다. “왜 그와 같은 결정이 바로 이제 나왔는가?”라고 CBCP의 대변인인 고위 성직자 몬시뇨르 페드로 퀴토리오 씨는 묻고 있다.

필리핀 경영협회(MAP)와 금융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에서도 단호한 의사표명이 있었다. “ERB의 조치는 정부 정책의 지혜와 일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MAP 회장 모니코 야코브 씨와 MBC 회장 리카르도 로물로 씨는 발표하였다. 로물로의 형제이며 전화 거대기업인 PLDT의 경영주 로베르토 씨도 이와 같은 결정은 이전의 중요한 일에 대한 ERB의 모든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는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신뢰를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불안정하고 일관성 없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MAP와 MBC의 최고경영책임자들은 “오직 중요한 기관의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만이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설비에 더 많은 투자와 경쟁력을 채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3. 돌아온 로페스

지난 수십년간 정치에 열성적으로 참

여해 왔던 로페스 가족은 그들의 재산을 마르코스 정권하에서 빼앗긴 사건 이후 정치 참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인 페르디난드 로페스 씨는 3기에 걸쳐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이 주의 2기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일가는 1970년대에 권력자와 결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자산은 압류되고 억만장자 가부장의 큰아들인 유제니오 로페스 2세는 투옥되었다. 로페스와 그의 교도소 감방의 동료이었던 세르지오 오스메나는 1977년에 탈옥하여 미국내의 반마르코스 세력에 동참하게 되었다.

1986년에 권력자가 쓰러진 후 마닐라로 돌아온 로페스는 MERALCO와 ABS-CNB 방송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그들 가족의 몰수되었던 지분을 대부분 되찾았다. 수도지역의 상수도과 고속도로 운용권리 등과 같은 기타 대형 모험기업은 정부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스메나가 마닐라 시장 알프레도림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라페스는 크게 정치의 투명성을 추구하였다.

### 4. MERALCO의 경영악화 유발

로페스 일가에 압력을 가하는 외에 ERB의 판결은 환불과 더 낮은 전기요금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몇백만의 고객들로부터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라카스-NUCD의 대통령후보와 하원 의장 요세 데 베네시아

의 비틀거리는 선거운동을 돕게 될 것이다.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45세의 리사 여사는 그의 매월 전기요금 약 50 달러에 대한 MERALCO의 반환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는……”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사실 큰 산업체와 큰 가정에서 내는 전기 사용요금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조를 하고 있으며,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이나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MERALCO의 재무담당 부사장인 라파엘 안드라다 씨는 반환금은 1998년의 회사의 운전 및 투자 예산의 전체액을 초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MERALCO는 최소 수익률 8%의 조건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이행불능을 밝히게 될지도 모른다.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어 전년도의 10.5%에서 7.8%가 될 것으로 안드라다 씨는 추정하고 있다. MERALCO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로돌포 퀘투아 씨는 수입이 유지 보수, 설비개선 및 설비 확장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공급의 악화”—전력부족에 의한 정전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전력공급에는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분명히 정치에도 또한 비용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결국에 가서 그들이 그것을 지불하지 않게 되지만 희망할 수 있을 따름이다.

(자료: 『Asia Week』 1998.3.13.)